

“코리아 프리미엄 함께 만들자… 감독정책에 발 맞춰 달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
“금융사, 소비자 권익 우선 고려
내부통제·사전 리스크관리 중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감독정책 협업을 강조하며 “코리아 프리미엄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기준에 근접했다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과 규제 유연화, 정책 사전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과실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동반자”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감독정책 방향에도 발 맞춰 달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의 금융사의 영업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 보호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며 “금융상품 설계부터



(앞줄 왼쪽부터)신진옥 메릴린치증권 대표, 뤼 즈펑 유안타증권 대표, 정혜연 아이엔지 대표, 카와세 노부히로 미즈호 대표, 피터 김 홍콩상하이은행 대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왕옥결 중국건설은행 대표, 하효건 중국공상은행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 김용환 맥쿼리자산운용 대표, 박근배 스코리인슈어런스 대표, 한스 브랑켄 약사손보 대표, 하진수 제이피모간증권 대표. /금융감독원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관세정책, 지정학 리스크, 국내 저성장 등 대내외 변수에 대비하려면, 리스크관리는 금융사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효율적 내부통제와 사전적 리스크관리를 기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글로벌 본사의 리스크 관리 경험을 국내 시장에도 적용해 선도적 모범사례를 함께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리스크관리가 금융회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핵심 경쟁력”이라고 언급했다.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외국계 금융사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은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금융회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계 금융사 CEO들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와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전략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외국계 증권사 대표는 “시장 접근성과 외환 자유도 등에서 이미 글로벌 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한 상황”이라며 “일관된 제도 개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CEO는 “외국계 금융사의 회계 기준이나 글로벌 운영 구조를 고려해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달라”며 “감독정책 방향도 사전에 공유돼야 예측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도 MSCI 편입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기관 TF를 통해 연내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고,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정비 중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술특례상장 심사기준 세분화, 퇴직연금기금 가입 확대,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반도체, AI, 문화산업 등 성장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투자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외국계 금융사도 한국 기업과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외국계 금융회사는 한국과 글로벌 자본시장을 잇는 가교이자, 금융 혁신의 여정을 함께하는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금감원도 앞으로 고건과 경협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KRX, 뉴욕사무소 개소… “북미투자 가교” 이가탄·메이킨 넘어 CNS 압도적 성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美 출국
싱가포르·북경·런던 이어 4번째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KRX 뉴욕사무소 개소식’과 미국 파생상품·탄소크레딧 거래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출국했다.

한국거래소는 정 이사장이 이날 개최되는 ‘KRX 뉴욕사무소 개소식’을 위해 전날 출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미국 증권협회(SIFMA) 케네스 벤슨 최고경영자(CEO), 헨리 페르난데스 MSCI Chairman&CEO, 피오나 바셋 FTSE Russell CEO 등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기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한국거래소는 북미 투자자와의 상시 소통 채널 구축,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 및 접근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글로벌 금융중심지 뉴욕(맨하탄)에 현지 사무소 설치를 결정했다. KRX 뉴욕사무소는 북미 지역에 위치한 기관투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9일 부산 시그니엘 호텔에서 개최된 ‘FIA Forum: Busan 2025’에 앞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자, 증권사, 지주사업자 등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한국자본시장 마케팅·네트워킹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5월 런던사무소 개소에 이어 뉴욕사무소를 신규 설치했다. 글로벌 4대 권역(싱가포르, 북경, 런던, 뉴욕 등)에 한국 자본시장 마케팅 거점확보를 완성한 것이다.

정 이사장은 “한국거래소 뉴욕사무소는 명실상부한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인 뉴욕 맨하탄에서 한국 자본시장과 북미 투자자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며 “뉴욕사무소를 통해 북미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 제공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 이사장은 16일 KRX 탄소크레딧시장 개설 관련 업무협력 추진을 위해, 미국 소재 글로벌 탄소크레딧 거래소 운영사인 익스팬시브(Xpansiv)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17일부터 18일까지는 글로벌 파생상품시장 허브인 시카고에서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사장인 린 피즈패트릭과 크레이그 도노후 시카고옵션거래소(CBO) CEO를 각각 만나 양국 파생상품 시장 간의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IPO 간담회

명인제약

중추신경계 200여 종 치료제 확보
작년 매출 2694억, 영업이익 928억

“명인제약의 핵심 사업은 중추신경계(CNS) 분야이고, 업계 1위를 달성하며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번 상장을 통해 차세대 제형, 신약 개발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해 세계 제약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에서 기업공개(IPO)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스피 상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1985년 4월에 설립된 명인제약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대표 제품으로는 잇몸 질환 치료제 ‘이가탄’과 변비약 ‘메이킨’ 등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CNS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중추신경계 치료제 분야에 200여 종의 치료제를 확보했으며, 그중 31종은 단독의

약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이가탄, 메이킨 등 일반의약품(OTC) 부문은 15% 수준이지만, CNS 분야가 76.4%를 견인한다.

명인제약은 실적을 잘 내는 제약사로 꼽힌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2694억원, 영업이익은 928억원을 기록하면서 3개년 연속으로 3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개발(R&D)부터 원료의약품(API)생산, 완제의약품 제조와 판매·유통까지 수직계열화된 ‘원스톱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명인제약은 “단 한 번의 마이너스 성장이 없이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장의 실질적 목표가 지분 승계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일각에서 이번 상장과 승계를 연결해서 보시는 시각이 있지만, 대주주 지분이 충분한 상황에서 승계만을 생각했다면 굳이 상장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상장은 오직 성장과 신뢰를 위한 상장이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3~4년 이내에 전문 경영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AI 직접연동 투자 프로그램 ‘MCP’ 오픈

한국투자증권, 코딩없이 자연어 지시

한국투자증권이 인공지능(AI)과 직접 연동하여 이용자가 손쉽게 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MCP 서비스를 오픈했다.

15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오픈 API 제공 서비스에 MCP(Model Context Protocol)를 개발해 적용했다. MCP는 AI 에이전트들과 외부의 데이터 소스, 도구, 워크플로우 등에 일관되게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통

신규약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별도의 복잡한 코딩 과정 없이 자연어 지시만으로 한국투자증권 오픈 API를 활용한 투자 프로그램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가령 ‘A주식이 5% 오르면 10주 매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라는 간단한 프롬프트로 개인화된 트레이딩 톨을 구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픈 API 활용 사용자 편의성도 강화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와 개발자가 알고리즘·퀀트 등 자신만의 전략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트레이딩 API를 공개하고, 개발자 센터 KIS 디벨로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트레이딩 API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실제 서비스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샘플 코드를 오픈소스 플랫폼 ‘GitHub’에 무료 공개했다.

또한 ChatGPT 기반 챗봇 서비스(GPTs)를 새롭게 도입해 API 사용법 안내, 오류 해결, 예제 제공 등을 24시간 지원한다.

한국투자증권은 AI 관련 보안 및 제도 요건에 맞춰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B증권, 인도네시아 ‘무지개교실’ 완공

KB증권은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북자카르타 칠린싱 지역의 알 라흐마 사립학교에서 해외 ‘무지개교실’ 완공식을 개최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무지개숲’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KB증권 ‘무지개 교실’은 국내외 아동의 교육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KB증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미래 세대 육성이라는 KB증권의 ESG

경영 철학을 담아 2009년을 시작으로 이번 인도네시아 ‘무지개 교실’까지 총 국내 23개소, 해외 15개소를 포함한 총 38개소에서 진행됐다.

KB증권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에서 맹그로브 숲 조성을 위한 ‘무지개숲’ 협약식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폭 무이라 지역에 20만 그루의 맹그로브 나무를 식재하기로 했다. /신하은 기자